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MARCH 2014

LOVE
THE
ANSWER



이제는 생태주의다

The Ecological Art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90
201403



〈A is B, which is C. C is D.〉

정수진_다차원 존재의 출현 전

3.27~5.18 **갤러리 스케이프** 정수진이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언어를 바탕으로 회화의 다차원성과 사물의 상호관계를 화면에서 다뤄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간의 역사를 역추적하며 이분된 세상의 관념들을 한층 더 심화된 작업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 기간 중, 작가의 시각이론을 집필한 책이 출판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Untitled〉

임주연_Felt Site(달은 풍경) 전

2.26~3.31 **스페이스 비엠** 자신이 탈의하는 순간들을 회화라는 매체로 시각화해 온 임주연의 개인전이 열린다. 작업 초기 '의복'이라는 대상에 집중해온 작가는 점차적으로 '탈의'라는 행위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기작부터 탈의로써 관계와 풍경에 대한 함의를 드러내는 최근작까지 작품 15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동규 · 문세린 〈땀을부르는발길질〉



바닥에는 더 신선한 공기가 있어 전

2.10~3.7 **아마도 예술 공간** '바닥'과 '장소특정성'에 집중하여 작업한 젊은 작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김동규, 김지영, 도완영, 문세린, 정지현, 조범석, 오민정, 우한나, 임은빈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 각 작가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제도적, 심리적인 바닥을 탐험하며 바닥으로부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설치전경

줄리안 오피(Julian Opie)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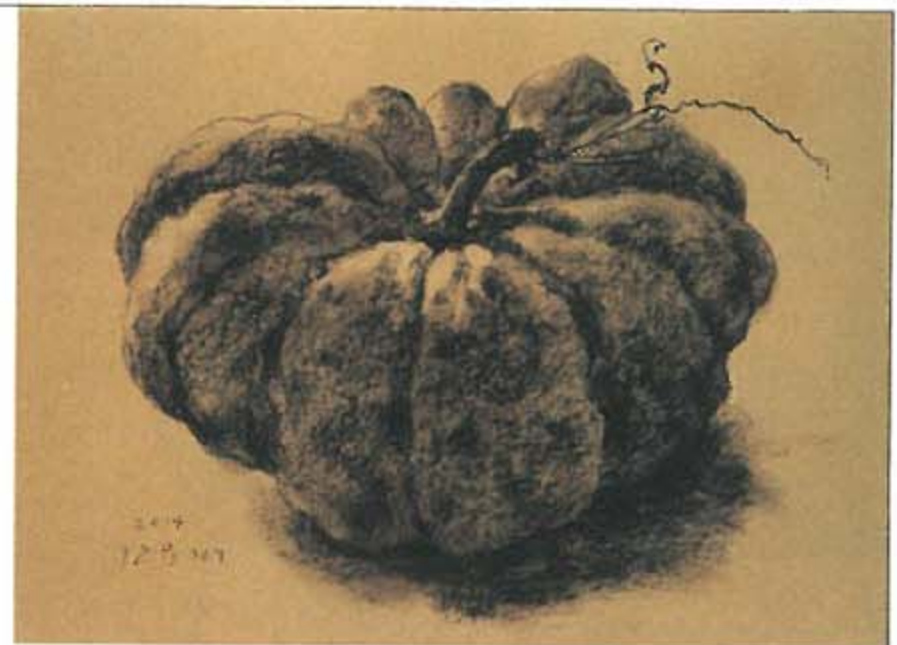
2.13~3.23 **국제갤러리** 현대 도시인들을 단순화된 형태의 초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 온 영국작가 줄리안 오피가 개인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신사동·사당동의 보행자들을 다룬 회화 연작과 작가의 대표적 초상을 거대한 레진으로 만든 조각 등 최신작을 선보인다. 런던의 보행자를 담은 LED 애니메이션 연작도 만나볼 수 있다. 오피가 표현한 보행자들의 활기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



〈높은 오름〉

강요배_소묘: 1985-2014 전

2.19~3.30 **학교재갤러리 본관** 강요배의 드로잉만을 한 공간에 모은 전시가 열린다. 80년대 삽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수많은 소묘작업을 통해 작가의식과 작품세계를 형성하면서, 민중성과 리얼리즘의 근간을 마련해왔다. 1980년대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30년에 걸친 소묘 53점과 아크릴화 4점을 선보인다.



〈호박〉